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37째주 (9월 12일)

정교회 주보



성 필로테오스 사제

십자가 현양 축일 전 주일

성모 탄생 축일 종례일, 아프토노모스 주교순교자
제 3조, 조과복음 1

(조과에서 십자가 현양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모 탄생 축일 찬양송 / 186, B 206
- 성당 찬양송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 186, B 207
- 사도경 : 갈라디아 6:11~18 / 봉독서 211
- 복음경 : 요한 3:13~17 / 190, B 21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필로테오스 사제

성 필로테오스는 소아시아의 경건한 집안 출신으로 독실한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실과 자녀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교육의 모범을 본 마을 사람들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필로테오스는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대하듯 자신의 교회의 양떼들을 대했습니다. 즉, 경건함과 사랑과 철야기도와 가르침으로 자신들의 신자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느님께 금식과 철야기도와 매일 예식과

신성한 배움으로 “누구를 대하든 그들을 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입으로 시편을 찬양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위로해주었습니다. 비와 추위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으면 그들의 집에 방문하여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미덕으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 필로테오스의 큰 사랑을 보시고 풍부한 은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성인은 안식한 후에도 많은 기적들로 사랑하는 신자들을 위로해주었습니다.(10세기)

희망 - 슬픔 - 기도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로마서12:12) 사도 바울로는 로마인들에게 세 가지 의미, 세 가지 현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희망 - 슬픔 - 기도입니다.

1. 슬픔. 슬픔이 없는 삶은 유토피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형태, 강도,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항상 씁쓸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슬픔은 언젠가 한번은 우리 모두를 찾아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제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오늘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슬픔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허나, 사람이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러한 만큼 자신의 삶과 마음에 슬픔을 위한 자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슬픔이 깊어져서 우울증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우울증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로의 “환난 속에서 참으며”라는 권고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2. 희망. 슬픔을 경감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사도께서는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라고 조언합니다. 행복한 일들에 대한 희망은 슬픔을 줄여줍니다. 희망은 ‘새벽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몰 후에 일출이 오게 하신 그리스도여,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한 시인은 노래합니다. 일출에 대한 기대, 어둠 뒤에

틀림없이 빛이 온다는 확신은 사람에게 슬픔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새벽은, 밤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듯, 빛을 품고 있는데, 희망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낳는 기대는 이 지상의 삶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지상의 험난한 삶을 헤쳐가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가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 주실 도시를 바라며 살”(히브리서11:10)도록 힘과 영감을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슬픔이 없는 삶’이 아니고 ‘고통이 없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3. 기도. 희망이 슬픔을 경감시키는 것이라면, 기도는 슬픔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이 약은 올바르게 복용해야 합니다. 요한 크리스토모스 성인께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기도는 약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복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 약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사도 바울로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꾸준한 기도”입니다.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느님”(Ⅱ고린토1:3) 아버지께 대한 신뢰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사람들의 시계와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희망의 닻과 기도의 키가 있으면 어떤 슬픔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대양을 가로질러 승리의 항해를 할 것입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야고보스 찰리키스 성인(1920-1991) 9(생애 2)

야고보스 성인은 뵘르피리오스 성인과 같은 시대에 사셨으며, 두 성인 모두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었습니다. 야고보스 성인은 1991년 11월 21일에, 그리고 뵘르피리오스 성인은 1991년 12월 2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두 성인은 현대의 정교회에 커다란 영적 충격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영향은 성인들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훨씬 더 크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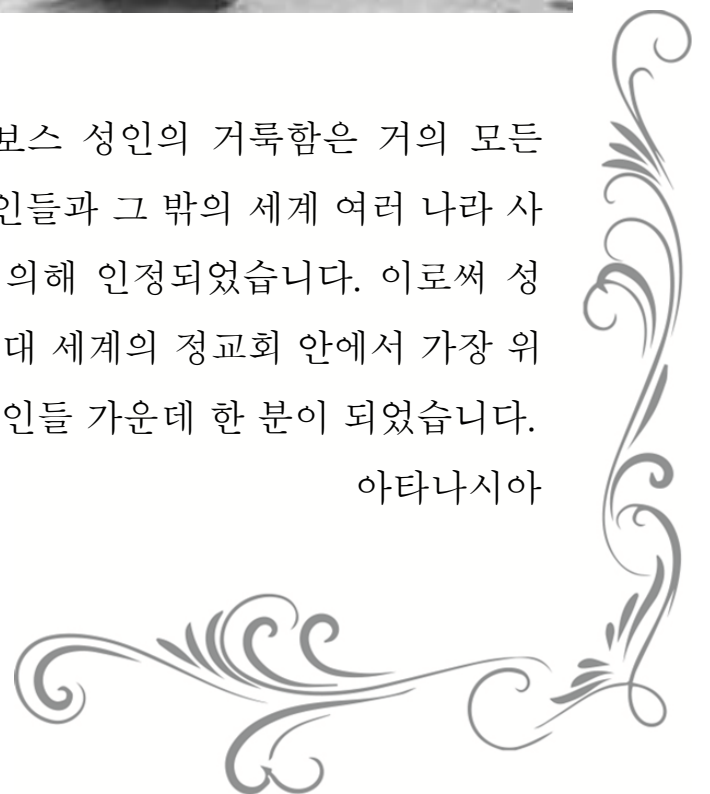
야고보스 성인의 삶에서 특별한 것은 성인을 공격하는 악마와 가시적인 싸움을 한 것과 성인이 악마를 제압한 방법입니다. 이런 어둠의 영들과 싸운 경험에 뒤따라서 성인에게는 악령을 몰아내는 능력이 은총으로 주어졌습니다. 성인은 자신이 있던 수도원의 설립자 다비드 성인의 성스러운 두개골로써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많은 악마를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악마들은 성인이 수도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때에 육체적으로 성인을 공격하였습니다. 특별히 1980년대에 사람들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주 수도원으로 데려와서 악령을 몰아내는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야고보스 성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는 다비드 성인의 성해(聖骸)로써 축복하였고, 그러면 사람들은 악령에서 풀려나곤 하였습니다.

성인이 계셨던 수도원은 1550년 다비드 성인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다비드 성인의 성해는 오늘날까지도 매우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고 있으며,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스 성인의 거룩함은 거의 모든 그리스인들과 그 밖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성인은 현대 세계의 정교회 안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들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9월14일 화요일은 십자가 현양축일입니다. 교회의 큰 축일로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림으로써 십자가의 힘을 받고 영적생활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 날은 성 대 금요일과 같은 큰 축일로 엄격한 금식일입니다.

■ 세계총대주교청 주교회의

2021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콘스탄티노플에서 바로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의 주재로 세계총대주교청 관할의 모든 주교들이 참여하는 주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주교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은 코로나 19의 중대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21세기에 복음의 선포, 현대의 지정학적 상황과 그 안에서의 교회의 역할, 노년과 청년에 대한 사목적 보살핌, 수도생활의 귀중한 증언, 사회적 기풍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회의 기여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총대주교께서는 전염병의 빠른 종식을 기원하셨고, 신자들에게 국가와 보건당국의 지시(예방접종 등)에 따르기를 권고하셨습니다. 또한 온 세상

에 평화, 사랑, 희망 그리고 성 삼위의 자비가 있기를 기원하셨습니다.

■ 교회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추석을 맞이하여 용미리 교회 묘지의 별초 작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 교회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묘지 관리비는 100,000원입니다.

우리는행 077-041887-01-103 / 예금주 :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전주 성모안식 성당

■ 전주 성모안식 성당 재건축 헌금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로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건축헌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신자 분이 성당 중앙 돔 위와 종탑 위 등 세 개의 십자가 제작을 위해 천만 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공사대금이 충당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간예식



9월 14일(화) 십자가 현양 축일

9월 17일(금) 성 소피아와 그녀의 딸들 성 빼스띠,

성 엘빠다, 성 아가빠 순교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